

더불어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보도자료

단장: 서영교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운, 이연희, 허성무



**비상계엄의 트리거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거부는 내란동조!
검찰, 윤석열·김건희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증거확보 나서야!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위해선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이 답!**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대행의 내란동조 규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위헌을 운운하며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뻔뻔함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위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특검을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김건희 소환과 압수수색 나서라!

증거와 의혹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정치인 중 구속된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 뿐입니다. 홍준표, 오세훈, 윤상현, 김진태 등 관련자들을 왜 소환하지 않는지, 중앙지검은 이들도 무혐의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김건희 수사 및 지휘·감독 적절했는지 의문!

검사탄핵 심판에서 현재는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지휘·감독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주가조작을 덮어버린 검사장입니다. 김건희 라인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더 윤석열·김건희 부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황제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범죄를 짚아몽겔 생각은 꿈도 꺾어서 안 됩니다.

윤석열 불법석방 때문에 김용현, 명태균, 김영선 구속취소 신청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불법적으로 석방시켰습니다.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석방을 지휘해야 하는데, 석방 지휘만 했던 겁니다.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는 '불법 석방'으로 구속되어 있는 내란 공범들 모두 풀려나게 할 셈입니까? “나도 풀어달라”며 내란 2인자 김용현, 그리고 명태균, 김영선까지 줄줄이 구속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교도소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관저에서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게 둘 것입니까?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밝힐 지름길!

첫째, 공천개입을 증명할 윤석열·김건희의 육성, 무상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카카오톡 등 증거, 둘째, 대통령 당선 이후 명태균에게 국정원 자리를 제안하고 최근 2024년 총선에서 김영선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을 제안한 김건희의 매관매직 증언, 셋째, 창원산단 선정 관련 국가기밀 누설 및 투기 의혹, 넷째, 예화랑 등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다섯째, 최근에 나온 방산 대기업 특혜 의혹 등까지 밝혀야 할 종합비리가 많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멈춰 선 검찰 수사,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으로 그 물꼬를 터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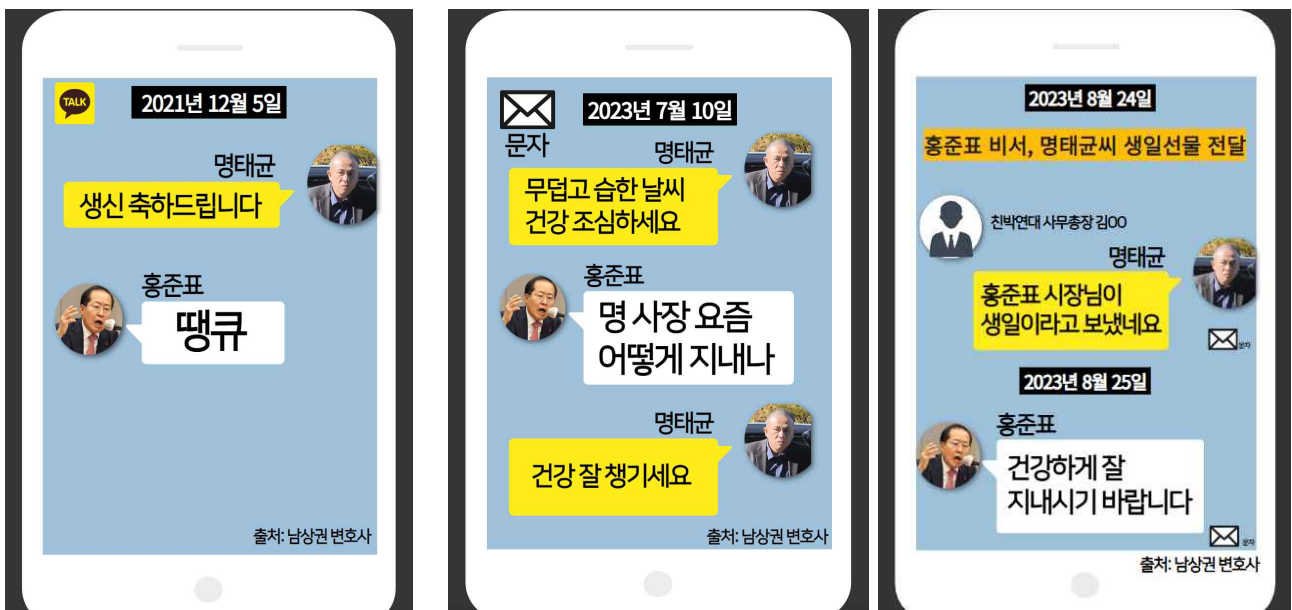
홍준표 시장, 명태균과 카톡했다. 새빨간 거짓말 드러나!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휴대폰에 목소리나 카톡 한 자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이 주고 받은 카톡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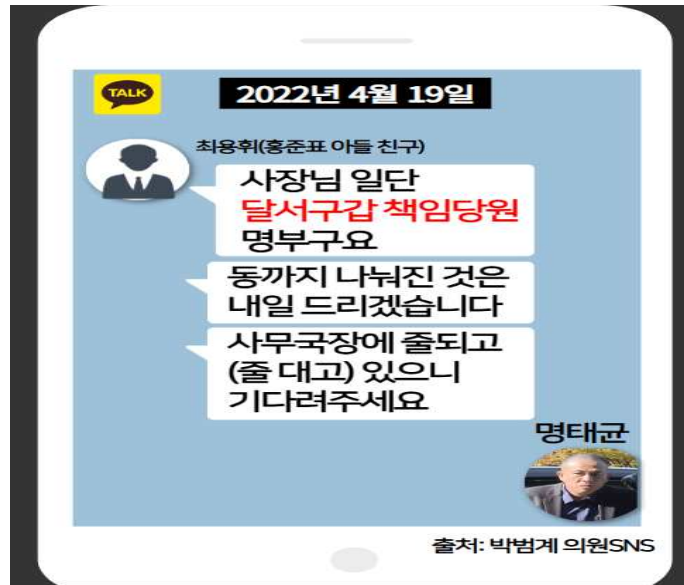
남상권 변호사가 카톡 한번 까보라고 해서 카톡을 까다고 하면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태균의 휴대폰에 다 있다고 합니다.

- ① 2021년 12월 5일 명태균이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이 명씨에게 '맙큐' 라고 답변을 합니다.
- ② 2023년 7월 10일 명씨가 홍 시장에게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니까 홍 시장이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 나”라고 답했고, 그러자 명씨는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합니다.
- ③ 2023년 8월 24일 홍준표 비서가 명태균 생일 선물을 들고 왔고, 그 다음날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카톡을 공개합니다.



홍씨 측근이 명태균에게 당원명부 제공한 불법 카톡도 나왔다!

홍시장 아들 친구 최씨가 명태균에게 “사장님 일단 달서구갑 책임당원명부구요”, “동까지 나눠진 것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에 줄되고(줄 대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라고 보낸 카톡이 명태균 휴대폰 포렌식 결과로 나왔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 카톡을 공개합니다.



카톡 대화 나왔다, 홍준표 시장! 정계은퇴하라! 또 말 바꾸는 홍준표! 홍준표 시장은 카톡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명태균과 작당한 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명태균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고 합니다. 그동안 명태균은 홍준표 시장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때도 명태균이 홍 시장의 당선 가능성을 먼저 여론조사로 따져 본 후, 홍 시장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사 비용은 측근들이 대납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홍준표 측근들의 여론조사 대납 금액은 1억원이 넘습니다.

명태균의 홍준표 맞춤형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책임있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본인의 말대로 ‘정계은퇴’ 해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홍준표 시장을 소환조사하십시오.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지시, SH사장 제안까지 검찰 수사해야!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직접 전화해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할 테니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 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 동석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검찰에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한정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고 말했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만났고, 오 시장이 자신을 도와주면 김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하고, 명태균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그날까지 앞장 설 것입니다.

2025. 3. 17.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